

제 14 장

구속의 놀라운 신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롬 5 : 6~11).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에 대한 책들은 문자 그대로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에는 신학적인 용어들과 철학적인 논의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유들을 읽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고도 끝없는 신비를 설명하려고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철학적이고도 신학적인 그리고 이론적이고 가설적인 내용들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내가 이해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으며, 내가 마음을 다하여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주 내에 있는 도덕적 의식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우주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한 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부족이나 민족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인 감각을 지니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감각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세계에는 약삭 빠르고 지능을 가진 동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실제로 우리의 도덕적인 감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거대한 파노라마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과 도덕적인 감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모든 세대의 전 인류는 도덕적인 결핍과 범죄 의식과 정죄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도덕적 의식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극적이고 예리한 말씀을 살펴봅시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들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 14~17).

바위와 산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날에서 우리를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바위와 산이 우리의 범죄를 가려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에 죄책감과 정죄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덕적인 의식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잎을 따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감추기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마가 왜 충분하지 못하였습니까? 왜 그 무화과 나무가 그들을 가려 줄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숨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죄와 벌거벗음과 수치를 숨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연약하였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는 아합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전쟁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의 몸 전체를 감싸도록 갑옷을 입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적군이 화살을 겨누어 그대로 날려 보냈을 때(그 군사는 그 화살을 어느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서 쏜 것이 아니라, 그냥 쏘아버린 것입니다), 그 화살은 왕의 갑옷의 틈을 찾아내어 그의 심장을 꿰뚫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붉은 피를 그 전차 안에서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정죄의 화살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모든 회국 가운데에서 가장 극적인 작품은 아마도 맥베드일 것입니다. 맥베드 부인의 부추김에 의하여 그 성주는 자신의 성에서 어떤 손님의 심장에 칼을 꽂고 맙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왕인

던칸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가 맥베드 부인의 곁으로 왔을 때, 그의 손은 그 단검에서부터 피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맥베드 부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작은 물만 있어도 우리를 그 행동으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맥베드는 그의 손을 씻기 위하여 궁전에 있는 샘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넵툰(Neptune)의 대양을 가지고도,
 피묻은 나의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나의 이 손이 그 엄청난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말 것이다.
 그 푸른 바다를 붉게 만들고 말 것이다.

어떻게 당신의 손에 있는 그 범죄의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판사 앞에 십대의 소년인 그의 아들이 서있고, 그는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소년은 판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잘못을 판사는 깨끗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사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소년을 물끄러미 쳐다 보더니만, 법률책을 펴서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의식과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의식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다 타락하였고, 죽어가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과 의지와 삶에 있어서 타락하였습니다.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또 다른 보편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법칙이며, 보상과 속전(贖錢)의 법칙입니다. 레위기 25장을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의 재산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빼앗기게 되면, 그 사람의 친척이 그 가난한 사람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구속의 법 또는 속전(贖錢)의 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동일한 장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팔리어서 노예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친척이 그를 다시 사서 구속할 수 있다는 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노예이든지 간에 돈을 지불함으로써 다시 사서 구속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여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속의 법 또는 속전의 법도 역시 보편적입니다. 성경 연구를 하면서 내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대속” 또는 “화목”이라고 번역된 단어에 관련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롬 5:10).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18~20).

“화목하게 하시느”(καταλλάγητε) 그리고 “화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 돈을 교환한다는 의미에서 “교환”(καταλλαγή)의

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적의가 우정으로 변화되거나 증오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묘사하였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편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중 한 편이 다른 적으로부터 어떤 장군을 체포하자 상대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장군을 우리에게 다시 인도하기 위하여 100명의 줄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니면 다음과 같은 상황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군을 한 명 체포하였는데, 우리는 이 장군을 10명의 줄병과 교환(καταλλάσσω)할 것이다”라고 장군을 체포한 측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빚지고 있는 수 천 달러를 대신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교환하고 싶다.” 그는 돈 수 천 달러를 대신해서 다이아몬드 하나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매우 재산이 많은 어떤 부자는 자기의 집과 농토를 몰수당 할 지경에 놓여 있는 가난한 사람들 수 천 명을 대신하여 그 돈을 갚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신성 안에 계신 분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그의 생명과 영혼과 존재와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과 사랑의 자비와 우정을 가지시고, 그 자신과 그의 사랑을 희생으로 교환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여 아무 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가 될 수 밖에 없고, 정죄와 심판을 면치 못하는 불쌍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이 친히 우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베드로 사도 역시 그와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그의 첫번째 서신의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19).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이것이 바로 교환입니다. 주님께서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값아야 할 빛을 대신 값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하였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이 세계에도 “대속”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대신 당하는 고난, 대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흔히 있는 개념이며, 우리 모두가 항상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때때로 매우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모리아산의 그 장소에는 후에 성전이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산 위에 제단을 만들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를 위하여 그를 그 제단에 올려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년의 심장에 칼을 내려 찌르려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님의 천사가 숲속에 양을 한 마리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희생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 또는 대속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4장에서, 이스라엘의 11명의 아들들이 애굽의 국무총리 앞에 서있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국무총리는 그들이 십대의 어린 소년을 노예로 팔아버린 바로 그들의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변해버린 오랜 세월이 그 소년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형제인 요셉은, 그를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의 친 형제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였던 라헬로부터 나온 그의 친형제였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려 보낼 때, 그는 “베냐민은 나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모든 문

학 가운데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극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유다는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가서 그의 동생인 베냐민을 위하여 간청을 합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 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다음의 구절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창 45:1). 유다가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창 44:33)라고 말을 할 때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리고야 맙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하고 그 대신에 나의 동생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유다의 엄청난 결심은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말은 매우 고귀한 대속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의 모든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죄인은 그의 제물을 가지고 희생을 드리기를 위하여 직접 와야 합니다. 그는 그 희생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한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양이든지 황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러한 대속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이것은 복음(εὐαγγέλιον)의 위대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비교할 수 없는 선포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처형 당하였습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대신하는 대속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인 정신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와 논의하기 위하여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위대한 최후의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소중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 10:7, 9). 그리고 그의 뜻은 바로 그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죽음은 이제 그 독침을 빼앗겼고, 그 무덤의 소리를 빼앗겼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죽음은 오히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이 세상의 상처에 우리의 눈을 감아버리고, 하늘의 영광에 우리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구원의 은혜에 관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것은 결코 실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효과적인 대속입니다.

침례(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품에 기대어 앉았던, 사랑받았던 요한

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일 2:2).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케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보혈입니
다.

베드로는 수 천 번 넘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조금도 흔들
리지 않고 명백히 선언합니다.

욕을 받으시고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
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
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
: 23~24).

그리고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설교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
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
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
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8, 10).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장의 위대한 감동을 주는
도입 부분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

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계 1 : 5).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는 우리의 자리에 내려 오셨고, 우리가 만드시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늘나라를 향한 열린 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선물

우리가 수정과 같은 바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보좌 앞에 직접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까? “내가 행한 것을 보라. 나는 나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원을 얻게 되었노라. 나는 나의 부채를 지불하였다. 나는 나의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내가 취득한 것이고, 내가 성취한 것이고, 내가 마땅히 받을만한 것이다.” 아니면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였고, 죽어가는 자였고, 정죄받은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진흙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는 내 대신 죽으셨고, 나의 구원은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하시는 능력으로부터 나온 선물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에게는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만군의 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요한 계시록에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들은 그 낙원의 황금 길을 다니면

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게 그 아름다운 노래를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사들의 대장이십니다. 그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왕이십니다. 그는 수 많은 그 천사들의 찬송과 존귀를 마땅히 받으실만 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셀 수조차 없는 수 많은 그 천사들이 드리는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듣게 될터인데,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까!

그러나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바 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결코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결코 속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천사들도 우리가 겪었던 그 경험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죽지도 않을 것이고, 매장되지도 않을 것이고, 부활의 영광 안에서 다시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죄의 용서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와 같은 찬양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피의 흐름을 본 이후로부터
당신의 상처로 부터 나오는 그 피를,
구속하시는 사랑은 나의 노래가 되었네.
내가 죽을 때까지 말일세.

잘 돌아가지도 않고 더듬거리는 이 혀가
무덤에서는 침묵하게 되겠지.
그 때에는 고귀하고 달콤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구원하신 당신의 능력을 찬양하리.

그는 깊은 슬픔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셨네.
그는 나를 위하여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지셨네.
그리고 나의 모든 근심을 가져 가셨네.

나는 그에게 나의 생명과 호흡을 빚졌다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기쁨도
그로 인하여 나는 죽음을 이겼다네.
그리고 그는 나를 그 무덤에서 구원하시네.

이 노래는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